

여수시, 27개 사업 ‘시책 일몰제’…섬박람회에 재정 집중

실효성 떨어지는 사업 폐지·보완
10억여원 절감…역점사업 재투자

여수시가 내년 개최되는 여수세계섬박람회를 앞두고 행정 효율성 제고와 예산 절감을 위해 ‘시책 일몰제’를 본격 추진한다.
시책일몰제는 시가 시행 중인 예산 또는 비예산 시책 가운데 정책 환경 변화로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자체진단을 통해 과감히 폐지하거나 보완하는 제도이다.

이번 조치는 국가산단 불황에 따른 시 재정 여건 악화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와 관련, 행정·재정적 조직역량 결집을 위한 시의 전략적 판단이 반영된 조치로, 약 10억 600만원 가량의 예산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 3월부터 두 달간 전 부서의 시책·제도·행사 등의 사업에 대해 전수조사와, 소관부서 자체평가와 11일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 27개 사업을 일몰대상으로 최종 확정했다.
이번에 일몰이 확정된 주요 사업으로는 ▲시정 제안 및 견문보고 우수직원 포상금 ▲365 아일랜

드 청년 유람단 ▲작은 다문화학교 운영 ▲학교급식 계약재배 농가 선진지 견학 ▲동부권 이동 도서관 운영(서부권과 통합 운영) 등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이번 일몰제 시행을 통해 절감된 예산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를 비롯한 시역점 사업에 재투입할 방침이다”며 “정기적인 일몰제 시행과 사업 모니터링으로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수시는 지난 2023년에도 일몰제 시행을 통해 16건의 사업을 일몰하고, 3억74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한 바 있다.
/여수=김창화 기자 동부취재본부장 chkim@



별교읍 여성자원봉사회가 밀반찬을 전달하는 ‘희망찬(饑) 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1인 남성 가구 안부 살피고 밀반찬 나눔

보성 별교읍여성자원봉사회 봉사

보성군 별교읍 여성자원봉사회가 지난 12일 관내 1인 남성가구 60세대를 대상으로 밀반찬을 전달하는 ‘희망찬(饑) 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별교읍여성자원봉사회 회원 30여 명이 참여해 열무김치, 장조림 등 정성껏 준비한 밀반찬을 조리하고 포장한 뒤, 별교읍 직원들과 함께 대상 가구에 직접 방문해 전달했다.
참여자들은 대상자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말벗이 돼주는 등 고독사 예방을 위한 따뜻한 정을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별교읍 여성자원봉사회 김미숙 회장은 “관내 1인 남성가구에 회원들이 직접 만든 반찬을 건넬 수 있어서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밀반찬 나눔 봉사를 통해 고독사 예방 가구의 안부를 살피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서진석 별교읍장은 “소외된 이웃을 위해 지속적인 나눔 봉사활동을 실천해 주시는 별교읍 자원봉사회원들에게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함께 나누는 봉사활동이 지속적으로 실시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별교=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광양 농산물안전분석실, 잔류농약 분석 실력 국제적 인정

영국 식품환경연구청 평가

15개 농약 성분 모두 ‘만족’ 등급

광양시 농산물안전분석실이 지난 4월 영국 식품환경연구청(FERA)이 주관한 잔류농약 국제 비교속련도평가(FAPAS)에서 15개 농약 성분 모두 ‘만족’ 등급을 받으며 3년 연속 분석 능력의 우수성을 입증했다.
비교속련도평가는 전 세계 기관을 대상으로 잔류농약·토양·중금속·미생물 등 분야에서 분석기관의 정확성을 비교하는 농·식품 분석능력 평가다.
이번 평가는 전 세계 33개 분석기관에 동일한 시료(무 푸레)를 제공해 분석값을 제출받은 후, 분석기관의 결과값으로 표준점수(Z-Score)를 산출해 ±2 이내일 경우 분석 신뢰도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광양시 농산물안전분석실은 제출한 15개 농약성분 모두 ‘만족’ 등급을 받아 국제적 수준의 분석 역량을 재확인했다.
광양시는 2019년 1월부터 시행 중인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에 따라 강화된 잔류농약 규제에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시민 수요 증가에 발맞춰 분석체계 고도화



광양시 농산물안전분석실이 잔류농약 국제 비교속련도평가에서 3년 연속 분석 능력의 우수성을 입증했다.

에 주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운영 중인 광양시 농산

물안전분석실은 LC-MS/MS 등 첨단 잔류농약 분석 장비 39종을 갖추고 있으며, 총 463종의 잔류농약 성분 분석이 가능하다. 분석실은 2023년 7월 정식 운영을 시작한 이후, 2024년 299건, 2025년 6월 기준 183건의 잔류농약 검사를 수행하며 분석 건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잔류농약 검사는 광양시에 주소와 농지를 두고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로컬푸드 출하 전 검사의 경우 무료로 분석이 가능하다.
잔류농약검사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출하 10일~14일 전에 농산물안전분석실(광양시 광양읍 서천로 177, 과학영농관 3층) 또는 관내 농업 로컬푸드 직매장에 분석의뢰서와 함께 시료(농산물 0.5~1kg)를 제출해야 한다. 검사 의뢰와 관련한 사항은 광양시 농산물안전분석실(061-797-3638)로 문의하면 된다.
김동훈 광양시 기술보급과 작물환경팀장은 “관내 생산·유통 농산물의 잔류농약 검사와 PLS 제도 홍보를 통해 부적합 농산물의 유통을 사전에 방지하고, 시민의 먹거리 안전성 확보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구례군청 씨름단, 여자부 전국 최정상급 또 한번 입증

괴산유기농배장사씨름대회

개인전 우승, 단체전 준우승

구례군청 반달곰씨름단이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충청북도 괴산군에서 개최된 ‘제2회 괴산유기농배장사씨름대회’ 여자부 경기에서 개인전 무공회급 우승, 단체전 준우승을 기록하며 다시 한번 전국 최정상급 실력을 입증했다. <사진>
이번 대회 개인전 무공회급(80kg 이하) 결승에 오른 최희화 선수는 화성시청 김아현 선수를 상대로 첫판에서 시작과 동시에 어깨걸어치기 기술로 기선을 제압했고, 두 번째 판에서도 뒷무릎 밀어치기로 마무리하며 2대 0 완승으로 정상을 차지했다.
최희화 선수는 “무공회급 우승을 오랜만에 차지해 감회가 새롭다. 슬럼프와 심리적인 어려움도 있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 기쁘다”며 우승 소감을 밝혔다.
또 단체전 결승에서 구례군청은 충북 괴산군청을 맞아 막판까지 가는 열전에도 불구하고 아쉽게 2대3으로 패해, 준우승에 머물렀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군민들의 자랑스러운 반달곰씨름단이 전국 무대에서 다시 한번 뛰어난 성적을 거둬 매우 기쁘고 자랑스롭다”며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정진해 군민들에게 감동을 전하길 바란다”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구례군청 반달곰씨름단이 지난 9일부터 7일간 충북 괴산에서 열린 ‘괴산유기농배장사씨름대회’에서 여자부 개인전 무공회급 우승과 단체전 준우승을 기록하며, 전국 정상급 기량을 입증했다.

순천시 30년 이상 노후 맨홀 정비·교체 나서

올해 3억여원 들여 154개 교체

순천시가 철제보다 내구성이 떨어져 보행안전을 위협하는 콘크리트 조화맨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비 및 교체공사를 본격 추진하고 있다.
이번 교체 공사는 도시 미관 개선과 저렴한 비용을 이유로 전국 곳곳에 설치됐던 켈러 콘크리트 재질의 ‘조화맨홀’이 30여년이 지난 현재 부식이 진행돼 안전사고 유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시행되고 있다.
이에 시는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취약지역을 순차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보행 시 맨홀 위

를 밟지 않도록 주의 문구를 표시하고 있으며, 맨홀 내부에 추락 방지 시설도 병행설치 중이다.
또한, 마모, 훼손, 부식 등에 강하며 최소 30년 이상의 내구연한을 가진 철제 맨홀 뚜껑으로 교체하기 위해 2025년 약 3억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154개소를 우선 교체 중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노후 조화맨홀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정비를 실시하고 있다”며, “교체 전 조화맨홀을 지나는 시민들께서는 보행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철제 뚜껑으로 교체된 맨홀.



전남 유기농 생태마을에 선정된 석곡면 당지마을 모습.

곡성군 당지마을 ‘전남 유기농 생태마을’ 선정

우렁이 농법 등 유기농업 기반 조성

곡성군 석곡면 당지마을이 ‘2025년 하반기 전라남도 유기농 생태마을’로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당지마을은 총 23가구(농가 18호, 비농가 5호)로 구성돼 있으며, 전체 경지면적 20.6ha 중 9.9ha 면적에서 유기농 인증을 받았고, 2.5ha에서 무농약 인증을 받아 총 인증면적 12.4ha로 기준 요건을 충족했다.
특히, 이 마을은 우렁이 농법을 활용해 벼를 재배하며, 10.2ha에 달하는 친환경 단지를 운영하고 있다. 주민들은 종자 구입, 육묘, 방제 등 다양한 공동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마을 공동체 중심의 친환경 농업 실천을 이어가고 있다.
지리적인 장점으로는 통명산, 국사봉, 달봉 등 산들로 둘러싸인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

며, 당지천과 당지저수지가 인접해 동식물 서식지와 철새도래지로서의 생태적 가치를 지닌다. 마을 담장은 전통 돌담으로 만들어져 자연 친화적인 경관 유지에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당지마을은 사업 선정으로 인해 최대 5억원의 유기농 생태마을 육성사업비와 4000만원의 활성화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으며, 향후 체험·가공·유통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농촌관광 자원화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곡성군은 곡성을 동막·새터마을, 죽곡면 상한·반송마을, 삼기면 근촌·연봉마을, 석곡면 죽산·전기마을에 이어 이번 당지마을까지 총 9개의 마을이 전남 유기농 생태마을로 선정되었다.
한편, 전라남도도 유기농업 확산과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2009년부터 유기농 생태마을을 지정·육성하고 있다.
/곡성=박순규 기자 psk8210@kwangju.co.kr

고흥군, 문화가 있는 날 ‘고흥예술정원’ 진행

25일 고흥 꿈꾸는예술터에서

학도병 주제 관객 참여형 연극

고흥군과 문화도시센터가 6월 ‘문화가 있는 날’ 구석구석 문화배달’ 고흥예술정원 프로그램을 오는 25일 오후 8시에 고흥 꿈꾸는예술터에서 진행한다.
이번 ‘고흥예술정원’은 예술공동체 단지와 함께 ‘삶에 새로운 감각이 필요한 당신을 위한 예술정원’이라는 주제로 개최되며, 6·25 전쟁 당시 전남 학도병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이머시브(관객 참여형) 연극을 선보일 예정이다.
지난 12일부터 사전 신청을 통해 이번 연극에

함께 참여할 관객 20명을 모집하며, 보호자 동반 시 8세 이상부터 참여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고흥문화도시센터 블로그와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흥군 관계자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학도병을 주제로 한 관객 참여형 연극이 고흥군민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한편, ‘문화가 있는 날’ 구석구석 문화배달’은 문화체육관광부, 전라남도, 고흥군이 주최하고, 지역문화진흥원, 전남문화재단, 고흥군 문화도시센터가 주관해, 11월까지 매달 ‘문화가 있는 날’ 주간에 문화예술 향유 촉진을 위한 행사를 진행한다.
/고흥=주작중 기자 gjju@kwangju.co.kr